

# 정안사 개원

### 민통선內 첫 사찰

### 천태종 양구군 해안면에...民·軍 합동법회 등 열어

6·25이후 처음으로 민통선지역에 사찰이 건립됐다. 강원도 최북단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에 건립된 천태종 정안사(주지 무안)는 21일 도용 종장, 운덕 총무원장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정안사는 94년 1천2백여평의

부지에 기공식을 갖고 4년여의 불사공에 법당(39평), 요사채(60평) 등을 갖추고 낙성됐다. 6·25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해안은 해발 1천3백40미터의 백암산이 있는 오지로 1백50여가구 2천6백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해안지역은 대부분 불자였던 주민들이 6.25직후 타

종교(교회3곳, 성당 1곳)의 전도 활동으로 갈수록 증가는 불자가 늘어나 포교의 사각지역으로 전락된 곳이다. 그러나 68년 10여명의 불자들이 천태종 해안분회를 결성하면서 전법활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86년 구성원 신도회가 한옥을 구입, 지역불자들의 숙원사업인

사찰건립불사를 발원했으며 94년 2월에는 청년회를 조직하는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불법홍포에 매진하고 있다. 정안사는 어린이, 청소년법회를 비롯 민군합동법회,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교의 마당을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해안은 제4당과 울지전당대를 찾는 외래객이 연간 10만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 이들을 위한 포교전략도 개발할 방침이다. 신도회장 최인순씨는 "초창기 레안지역의 불자는 무속에 가까웠을 뿐 아니라 허물어져가는 절터가 고작이었다"며 "불법을 전하기 보다는 불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 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양구=김종근 기자>



◇우리나라 최북단 민통선 마을인 해안면에 6·25 이후 처음으로 포교도량 정안사가 낙성됐다.

## 뉴스 & 뉴스

### 조계종 교과서위 내달 창립

조계종포교원과 전국교법사단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13일 포교원회의실에서 교과서연구위원회 구성을 위한 2차 준비모임을 열어 이 위원회 창립대회를 4월18일 서울경자동 불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위원장에 포교부장 원혜섭을 추대하기로 했다.

### 초파일 양심수사면 건의

5월3일 부처님오신날 양심수 추가 사면이 단행된다. 국민회의는 16일 간부회의를 열고 화해와 원상회복 차원에서 부처님오신날 양심수 추가 사면·복권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진관스님 석방 환영법회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출소 환영법회가 25일 오후4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봉행된다. 진관스님은 9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13일 제15대 대통령 취임 축하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 '봉축용품유통사업단' 설립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는 포교·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봉축용품유통사업단을 설립했다. 사업단은 봉축위원회에서 공식 지정된 캐릭터를 사용한 정품 만월등, 버릇, 현수막, 어깨띠, 리본 등을 판매한다. 또 모자, 조끼, 셔츠, 점퍼 등이 류류 품목으로 마련됐다. (02)725-8420

### 25일 군승단대의원 선출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25일 과산다보수원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군승단은 이날 총회에서 △군법당 운영의 신도참여 △각군 법당 매달 군승단에 재정보고 등을 의무화 한 군승단칙 개정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호법위원과 대의위원 선출하며, 총회에 앞서 군법당 운영사례 및 연구발표, 분임토의도 진행한다.

### 군불자 봉축위문품 보내기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성길)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장병불자에게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군불교진흥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만5천여 군장병불자들에게 봉축위문품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문품은 군법사가 없는 법당에 우선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하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위문품을 받아본 병사들이 1백여통의 감사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히고 "예산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칠 수 없는 일"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동행문의 02-749-5135) 또한 올해 중점사업으로 △군법당 시설 보수 및 부처님 동산 조성 △군법당 사무용품 보내기 운동 △사찰 1군법당 결연맺기 등을 추진기로 했다.

## 중학생불자 늘고있다

동대부중 신입생조사 불자 28.7% 차지 작년비해 2.1% 증가

중립학교의 98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현황조사에서 예년에 비해 불교신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부중의 경우 신입생 3백62명 가운데 불교 28.7%, 개신교 32.3%, 천주교 7.5% 무교 27.6%로,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할 때 불교는 2.1% 증가, 개신교 16% 감소, 천주교 2.7% 감소, 무교 12.7%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고우익교법사(동대부중)는 "올

해는 예년과 달리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정소년 포교의 청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밀양 흥재중학교의 경우 신입생 70명 가운데 47명이 불교, 개신교 5명, 무교 1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 해동중학교는 총 3백45명의 신입생 가운데 불교가 1백8명, 개신교가 1백7명, 천주교 23명, 무교 1백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성여중 명성여고 동대부고 금정중 등 중립학교의 신입생 종교현황조사 결과는 4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 '개·사운동 연구자료집' 발간

### 이념·사업등 학술적 정리...실무지침서 역할

조계종 총무원 '개달음의 사회화운동 연구기획단(단장 능관)'은 '개사운동'의 이념과 목적사업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개달음의 사회화운동 연구자료집' 1·2권을 발간했다. 개사운동의 학술적인 이념을 처음으로 정리한 이 자료집은 개사운동을 불교학·사회법리학·사회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명했다. 특히 연구기획단이 분석

한 '불교단체 사회성 프로그램 실태조사 보고서'는 전국 1백85개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불교 사회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눈길. 보고서는 △90년대 불교사회화운동은 80년대 민중불교운동에서 환경, 사회 등으로 영역을 넓혔으며 △'불교의 사회 참여'란 화두에서 '중단 개혁' 문제에 주요 관심 영역을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 연꽃마을·관음손바들등 목욕서비스 '가동'

교계 복지단체들의 지역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 자원봉사자 활발히 전개된다. 관음손바들간병인회(회장 혜원)는 3월말부터 부산지역 독거노인과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머리감겨드리기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매월 1회 노인 요양시설인

부산 보현행원을 방문해 목욕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대구불교사회복지회(회장 무공)는 3월부터 목욕봉사활동을 개시했으며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도 4월1일부터 저소득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 연꽃마을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일주일에 한 두차례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

## 연꽃마을 노인복지시설 21곳

### '팔공산 보살선원' '인천 경로의원' 등 잇단 개원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교계 최초의 노인전문 수행도량인 팔공산 보살선원과 노인무료병원인 연꽃마을 인천 동구경로의원, 노인무료급식소, 노인외과,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을 잇달아 개설했다. 보살선원(대구 동구 덕곡동)은 약 6천여평의 부지에 1차로 연경관 3백평의 건물을 건립하고 50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27일 삼존불공안식을 갖는다. 연꽃마을은 이와함께 인천

에 '연꽃마을 인천 동구경로의원'(032-765-3677)과 노인무료급식소, 노인의 집,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을 개설, 18일 오전 인천 동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경로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진료 및 치료, 정기건강검진,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경로식당은 매주 월~금요일 점심공양을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연꽃마을은 경로의료원 10개 등 모두 21개의 시설을 운영하게 됐다.



◇연꽃마을은 18일 인천 동구 경로의원을 개원했다.

## 목포불교대학 24일 개교

### 조계종 전법거점지역 지정후 첫 성과

조계종 전법거점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는 24일 전법거점지역인 목포에 불교대학(학장 보선)을 개설하고 현판식 및 개교식을 거행했다. 목포불교대학은 전법도량 지원금 3천만원과 관할교구본사인 대둔사에서 5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개교준비를 해왔다. 학장 보선스님은 "불교대학 개설은 불교세가 약한 이 지역의 숙원불사였다"며 "초·중·고·

대학생회 구성과 각종 교양강좌를 열어 지역포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불교대학은 이날 개교식에 앞서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대둔사주지 천운스님 등 4백여명의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역·중앙시장·불교대학 구간에서 거리택발을 실시했으며, 21일에는 교직원장 암도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 철웅스님 31일 경제난 극복법회

### 파계사 진동루서

대구 파계사 정선암 조실 철웅스님이 IMF한과 극복을 위해 20년만에 처음으로 산문을 나와 법문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파계사(주지 성우)가 31일 오후 1시 진동루에서 개최하는 영산대제에 초청법사로 참석한다.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법문을 한다. 스님은 정선암에서 20년간



두문불출하며 수행정진해 왔다. 한편 이날 법회는 불자연예인 김병조씨의 사회로 1부 경제난극복을 위한 영산제와 2부법회로 철웅스님 초청대법회가 이어진다.

## "인사가 만사라"

늘 듣는 이 말이 새삼스러워 지는 때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을 넘기는 동안 우리는 정부의 수많은 인사소식을 접했다.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데 있어 적임자를 능력에 맞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의 가장 큰 지혜일 것이다. 그런데 불교계는 지난 한달간의 정부인사에 상당한 우려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사람이 적절할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관급 인사에서 불자는 3명이 발탁됐고 기독교 천주교인이 대거 기용됐다는 것, 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종무실장은 신학 전공자,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가 집사

## 목타소리

라는 것이 주는 인사상의 종교분포는 많은 불자들을 우려케 하고도 남는다. 일을 할 사람의 종교 혹은 과거 이력이 그 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첫인상은 차치하고라도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타종교의 교편향 사례들을 아직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편향 사건들이 정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거의가 개인적인 종교편향에 젖은 사람에 의해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그 자연스러움이 불자들에게는 분노를 안겨다 주었다. 그 자연스러움의 근원은 무엇이었나. 분위기다. 장로 대통령과 특수정교의 해법이 무관치 않았던 그런 분위기 말이다. 지금의 인사대로 열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불교계와 관련된 각 부서에 그런 분위기가 짙게 배일 것이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불교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우이길 바란다.

## 인사가 만사라는데

독실한 신자라는 점은 앞날을 걱정하게 할 소지를 충분히 준다. 물론 불자들의 격정을 성급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 하는 것도 안보고 걱정부터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불자들은 장로대통령 시절의 암담하고 황당했던 증

#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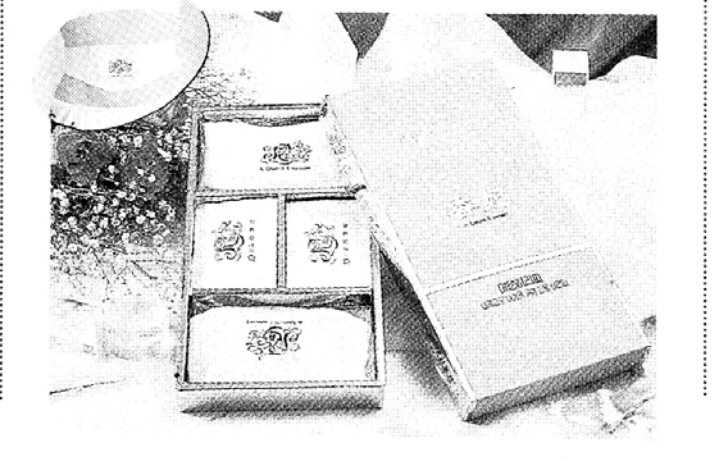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태중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흰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미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킵니다.

##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인 것이다. 즉 내분비계가 무너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통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야말로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 9. 생리대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뼂다. (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 15.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6. 변비가 있다. (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빨리 상담을 받으십시오.

—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36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니다. 종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를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 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